

이름 없는 자들의 잔여, 그 흔적의 온도

현오아(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문민은 오랫동안 알루미늄, 강철 등 금속을 주 매체로 삼아 '사각형 틀 속의 현대인'을 꾸준히 형상해 왔다. 머리와 몸통, 다리와 발이 모두 직선으로 축조된 사각형 인체는 눈·코·입은 물론 팔과 손, 귀조차도 지니지 못한 채 서 있거나 비스듬히 걷거나 주저앉은 몸짓만으로 존재를 드러낸다. 작가는 이 불완전한 인체를 '현대주의자'(modernist)라 부른다. 여기서 '현대주의자'는 특정 미술사 용어가 아니라, 스스로 구축한 현대라는 세계관(ism) 속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 다시 말해 제도와 규범, 사회적 시선 속에서 제한되고 규정되는 네모난 틀로 환원된 인간을 가리킨다.

문민이 반복해 온 이 사각형은 단순한 형식적 환원이 아니다.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상식과 합리, 제도와 규범, 역할과 윤리라는 보이지 않는 구조의 시각적 은유다. 그의 금속 조각은 이러한 구조의 힘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물질이었다. 차갑고 육중한 금속은 인간이 놓인 사회적 압력의 밀도를 고스란히 감각화했고, 규격화된 비례와 절제된 제스처는 존재가 어떻게 구조 속에서 제한되고 배치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세계에서 인체는 더 이상 자율적인 주체가 아니라, 그 틀에 자기 몸과 의식을 맞추며 관계적 맥락과 제도적 조건에 의해 규정되는 위치적 존재가 된다.

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에서 선보이는 문민의 개인전 《나를 비롯한 그대들 : 무명인의 부산물 part.2》는 네모의 세계에 새로운 물질을 추가해 또 다른 차원으로 그 영역을 확장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수건'이다. 수건은 인간이 태어난 이후 삶의 전반에 걸쳐 몸에 가장 가까이 닿는 사물이며, 체온과 땀, 냄새 같은 미세한 감각을 가장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표면이다. 그리고 반복 사용과 세탁을 통해 흔적은 빠르게 닳고 사라진다. 문민은 이 사물의 '접촉과 소멸'이라는 성질을 통해, 기존의 구조 중심적 세계를 감각과 표면의 층위로 전환시킨다.

그러나 수건은 이번 전시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재료가 아니다. 문민은 이미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열린 《전북청년 2024》 전에서 선보인 《나를 비롯한 그대들 에피소드 7: 무명인의 부산물 part.1》에서 나무 상자를 수건으로 포장한 조각 작업을 통해 수건을 처음 조형의 주요 재료로 도입한 바 있다. 당시 수건은 단단한 구조의 세계를 감싸는 외피로서, 프레임 위에 생활의 온도와 관계의 흔적을 덧입히는 역할을 했다. 이번 개인전은 그 실험이 일회적인 시도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하나의 조형 언어로 확장한 단계에 해당한다. 수건은 더 이상 구조를 '덮는' 표면에 머물지 않고, 감각, 기록, 순환의 이미지로 변주되며 전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매개로 자리 잡는다.

불완전한 존재, 무명인의 신호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벽면에 설치된 깃발 작업인 <감정의 표식>(2025)이다. 여러 장의 수건을 이어 붙여 만든 이 깃발에는 서로 다른 색과 질감, 다른 흔적과 문양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국가나 집단, 승리와 정복을 표상하는 전형적인 깃발과는 달리, 한 개인이 세상을 향해 알리는 익명의 신호에 가깝다. 작가에 따르면 이 깃발은 "한 개인이 남긴 감정의 편린이며, 타인의 시선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무명인의 자리"이다.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듯, 이 작업은 사회적 시선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요동치는 개인의 존재를 시각화한다. 그것은 거대한 목표를 향해 꽂히는 표식이 아니라, 한 개인이 세상에 조심스럽게 내미는 손짓, "여기 있다"는 미약한 신호라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람객이 가까이 다가오면 센서가 감지해 수건이 좌우로 움직이는 <표식의 흔들림>(2025) 또한 같은 연장선에 있다. 흔들리는 수건이 보내는 신호는 단순히 개인의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비로소 고유한 존재로 완성되기를 갈망하는 근원적인 염원을 담고 있다. 김춘수의 시 '꽃'의 유명한 구절처럼, 세상에 던져진 익명의 사물은 타인의 인식과 주목을 받

을 때야 비로소 의미 있는 대상이 되며, 그 존재성이 완성된다. 그러나 이 수건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상호적인 연결, 즉 관계를 능동적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주체의 의지를 담은 신호에 가깝다. 깃발이 흔들리는 모습은 주체가 자신을 알아봐 줄 '당신'과의 관계 맷음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증받고자 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몸짓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 흔들림은 불안정함인 동시에, 의미 부여의 순간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존재의 역동성이다.

관계의 이중성: 남겨진 것과 사라지는 것

또 다른 신작인 <목록>(2025)은 여러 장의 수건이 하나의 긴 띠처럼 연결되어 모터를 통해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순환하도록 만든 작업이다. 각 수건은 문구가 잘 보이도록 겹쳐져 있어서 관람자는 새겨진 글귀를 유심히 들여다보게 된다. 돌잔치, 결혼식, 회갑, 체육대회, 지역 축제 등 특정 이벤트를 기념하며 무료로 배포되는 '기념 수건'은 이름·날짜·장소 정보와 함께 관계의 시간과 기억을 축적해온 한국 사회 특유의 물질적 아카이브다. 공동체는 수건을 나누며 서로를 기억해 왔고, 개인은 쌓여가는 수건을 통해 자신이 지나온 관계의 경로를 물질적으로 보관해 왔다.

주목할 점은 이렇듯 사회적 의미가 축적된 사물이 일상에서는 매우 쉽게 잊히고, 때로는 익명적으로 방치된다는 점이다. 기념성과 일회성, 기록과 소멸이라는 이중성은 한국 사회의 관계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 문민은 바로 이러한 관계의 표면성과 시간성의 모순을 수건이라는 사물 안에서 포착한다. 그는 서로 다른 수건들을 겹치고 움직이는 방식으로 배치하여, 관계가 스치듯 닿고 사라지는 순간성과 삶을 따라 축적된 관계의 시간성이 한 화면에 병치되도록 만든다. 그 결과 조각은 단순한 재료 실험을 넘어, 한국인의 일상적 삶을 관통하는 관계의 방식 전체를 시각화하는 구조로 확장된다.

수건은 이처럼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익명적이면서도 정서적으로 깊은 이중적 성격을 지닌 사물이다. 문민은 이 사물을 통해 오랫동안 조각에서 다뤄온 익명적 신체, 구조 속 존재, 관계의 압력이라는 문제를 표면, 접촉, 흔적이라는 감각의 차원에서 다시 번역한다. 그 결과 그의 조각은 더 이상 구조만을 말하지 않고, 구조 안에 축적되었다가 사라지는 감정과 기억, 그리고 소멸의 시간까지 함께 끌어안는다.

결국 문민의 수건 작업은 새로운 재료의 도입을 넘어, 그가 지속적으로 질문해 온 '인간은 어떻게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가'라는 문제를 견고한 구조의 차원에서 감각의 차원으로 이동시킨다. 감정과 기억, 그리고 소멸의 시간은 더 이상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관계를 성립시키는 또 하나의 조건으로 떠오른다. 이 지점에서 관계는 더 이상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언제든 남겨지고 다시 사라질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로 드러나며, 문민의 조각은 바로 그 위에서 '기록할 수 없는 것들'의 얼굴을 호출한다.

우연의 흔적: 익명과 개별의 사이

전시장 곳곳에 배치된 <무명인을 위한 부록>(2025) 연작은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 데칼코마니(decalcomanie) 기법으로 얼굴을 찍어낸 수건 작업으로, 문민의 조각 세계에서 중요한 전환을 보여준다. 이전의 금속 조각이 구조 속에서 규정된 인간을 다루어 왔다면, 이 얼굴들은 그 구조 안에 놓여 있던 인간의 개별적인 표정과 감정, 내면의 잔류물을 비로소 전면으로 끌어올린다. 제도와 프레임, 규범의 압력을 은유하던 금속과 달리, 수건은 한 개인이 살아온 감정의 시간과 흔적을 보다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표면이 된다.

이 지점은 귀와 지문을 모티프로 삼아, 각 개인이 지닌 고유한 '바코드'를 스템핑 기법으로 찍어낸 작업 <인간 기술서>(2020)와 맞닿아 있다. 해당 작업이 신체의 일부를 통해 "기록 가능한 인간"의 식별 코드를 다했다면, 이번 전시의 데칼코마니 작업은 그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식별을 넘어서 '기록되지 않은 얼굴'의 발생 순간에 집중한다. 다시 말해, <인간 기술서>가 데이터화될 수 있는 개인의 코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무명인을 위한 부록>은 코드 바깥에서 일어나는 얼굴 이미지, 우연히 발생하고 소멸하는 정체성의 불완전성을 다룬다.

데칼코마니는 본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우연의 흔적을 남기는 방식이다. 좌우가 뒤집혀 서로

마주 보는 형태가 짹하고, 그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주름과 균열, 얼룩이 이미지 안에 자리한다. 그러나 이 우연은 매번 이전과는 결코 같을 수 없는 단 하나의 형상으로만 남는다. 이 반복 불가능한 차이는 얼굴이라는 것이 결코 유형화될 수 없는 개인의 고유성을 품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그 고유성은 영속적인 본질로 고정되지 않는다. 수건은 피부에 직접 닿아 체온과 땀, 물기 같은 미세한 감각을 받아들이지만, 그 흔적을 오래 불들어 두지 못하는 사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유한 얼굴이 '잠시 머물렀다가 곧 사라지는 표면' 위에 놓이면서, 개인의 정체성은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접촉 속에서 잠시 드러났다가 소멸하는 상태로 전환된다. 이러한 구조는 짧게 접촉하고 빠르게 단절되는 현대인의 관계 양상과 자연스럽게 포개어지며,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이 작동하는 방식을 은유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문민이 이 일시적인 흔적을 그대로 흩어지게 두지만은 않는다는 것이다. 낱장의 수건을 연대순으로 책처럼 엮어낸 것이 <기록되지 않은 무명인>(2025) 연작이다. 책은 기록의 매체이자, 기억이 정리되고 축적되는 방식이며, 역사와 개인의 시간성을 저장하는 장치다. 수건 얼굴을 책처럼 묶는 행위는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던 존재의 얼굴을 기억의 형식 속에 다시 배치하는 행위이며, 익명의 얼굴 또한 아카이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선언에 가깝다. 탁자 위에 놓여 '읽혀지기를 기다리는' 이 작업은 관람객에게 조용히 말을 건넨다. "이 얼굴들을 읽어보라. 넘겨보라. 이들은 한때 삶의 온도를 지니고 있었던 존재들이다."

네모의 세계, 그 너머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 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구는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문민의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오래된 대중가요 '네모의 꿈'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문민이 오랫동안 조각을 통해 탐색해 온 세계 역시 바로 그러한 '네모의 조건'이었다. 수건 역시 네모난 형태다. 그러나 이 네모는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놓이는 자리에 따라 동그라미, 세모가 되기도 하고, 접히는 방식에 따라 가변한다. 익명의 생활용품이면서도, 한 사람의 인간관계와 시간, 삶의 좌표를 은밀하게 품어온 사물이라는 점에서 수건은 이미 관계의 기록이자 잔여다. 이름과 사건은 지워졌지만, 달았던 순간의 온기와 관계의 결은 쉽게 사라지지 않은 채 표면 어딘가에 남아 있다.

그래서 문민의 수건은 네모이되 네모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다. 견고한 구조 위에 놓이면서도 그 구조의 경계를 끊임없이 느슨하게 만든다. 오래도록 사각의 프레임을 통해 현대인의 조건을 시각화해 온 작가는, 이제 부드럽고 포근한 물질을 통해 그 프레임의 바깥을 사유한다. 이 수건들은 단단한 질서를 단번에 벗어나려는 선언이라기보다, 네모의 세계 안에서도 여전히 다른 형식의 세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아주 미약하지만 지속되는 가능성의 흔적에 가깝다. 기록되지 않은 시간과 이름 없는 관계의 잔여가 스며든 이 표면 위에서, 문민의 조각은 구조가 끝내 봉합하지 못한 세계의 틈을 조용히 드러낸다.